

원희룡 장관, 30일 GISS 2023 참석

- 인도네시아, 카타르, 싱가포르, 레바논 장관 등과 릴레이 면담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0일(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ICAO 글로벌 이행지원심포지엄 2023(GISS 2023)」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부디 카야 수마디, Budi Karya Sumad), 카타르 교통부 장관(자심 사이프 아메드 알 수라티, Jassim Saif Ahmed Al Sulaiti),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에이미 코르, Amy Khor), 레바논 교통공공부 장관 겸 아랍민간항공기구 의장(알리 하미, Ali Hamieh) 등과 항공, 인프라, 철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부디 카야 수마디)과의 면담 자리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통한 양국간 국제선 운항 확대 및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자카르타주정부 MRT(도시철도) 4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면서, “LRT 1B단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전달하였다.
- 카타르 교통부 장관(자심 사이프 아메드 알 수라티)과의 면담에서는 카타르의 첫 이사국 파트 III 당선에 대한 축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그간 참여해온 카타르 국책사업에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카타르가 진행 중인 또는 계획 중인 발전담수 프로젝트, 통합철도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전달하였다.
-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에이미 코르)과의 면담에서는 싱 측의 ‘한-싱’ 노선 추가 증편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양국 간 새로운 사업 분야인 도심항공교통(UAM) 개발,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생산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우리 기업이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MRT(도시철도) 2단계 사업에도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될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와 ‘월드 스마트시티엑스포’에 싱측 장관을 초청하였다.

- 레바논 교통공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항공협정이 정식 체결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No Country Left Behind”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그간 아랍 회원국들 대상으로 추진해온 항공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석사학위 장학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지원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국 파트 II로 상향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많은 아랍 회원국들이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2023. 5. 30.

국토교통부 대변인